

KT, AI 스피커 직접 만드는 'AIY 키트' 출시

- KT 보이스키트와 라즈베리파이 컴퓨터로 코딩하는 내맘대로 'AI 스피커'

2018년 7월 28일



▲KT그룹 대학생 서포터즈 "모바일퓨처리스트(MF)";들이 AI 메이커스 키트를 활용해 AI 스피커를 만들고 있다. [KT=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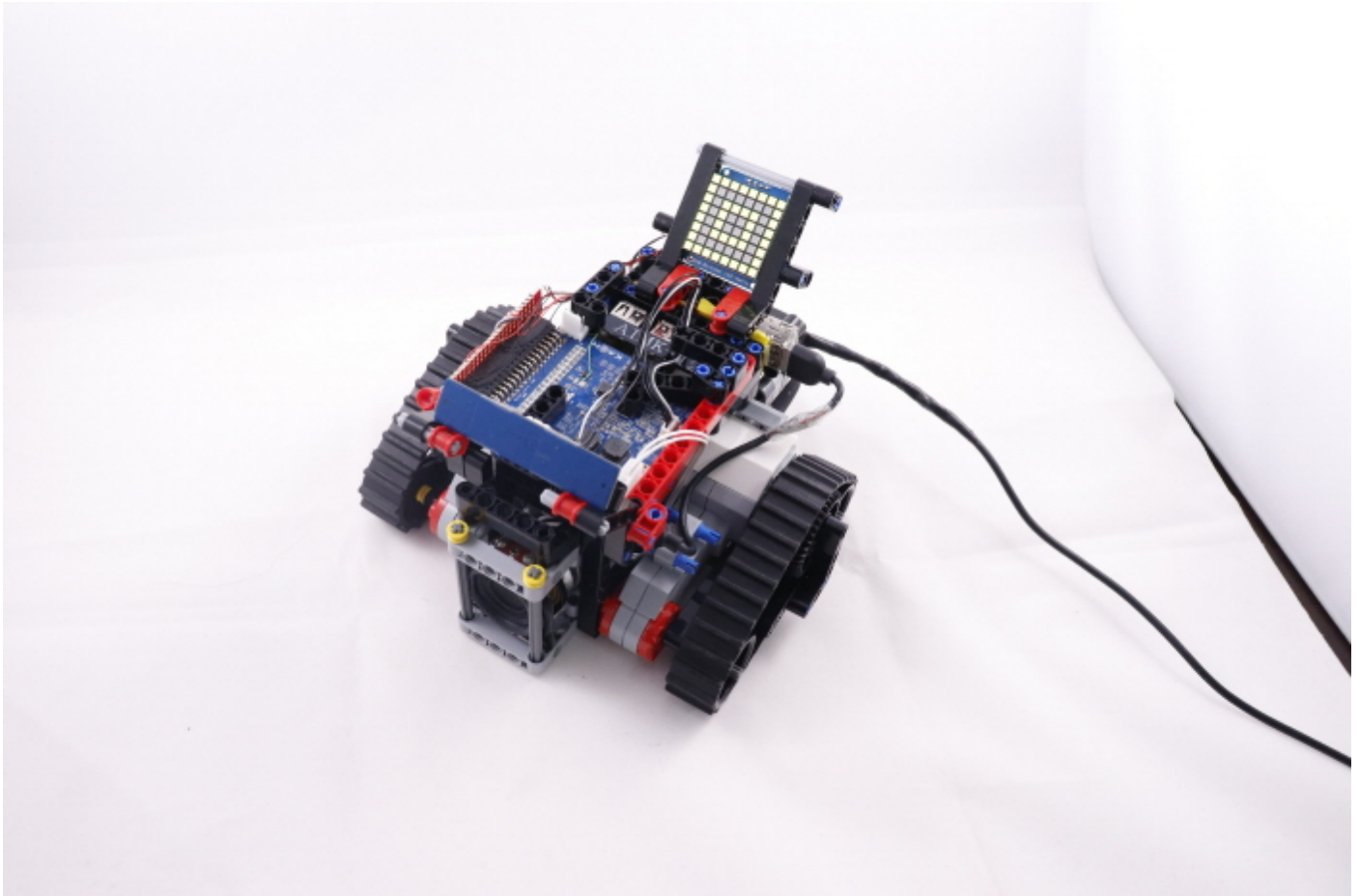
KT가 일반적인 코딩 능력이 있으면 인공지능(AI) 음성인식 단말을 만들 수 있는 STEM교육용 AIY 키트인 'AI 메이커스 키트(MAKERS KIT)'를 출시했다.

국내 최초로 이용자가 직접 AI 스피커를 만들 수 있는 이 키트는 초소형 저가 컴퓨터 라즈베리파이와 보이스키트, 부속품 등으로 구성됐다. 따라서 집에서도 아이와 함께 말로 움직이는 모형 자동차를 만드는 것도 가능해진다.

KT가 기가지니 100만 가입자 돌파를 기념해 과학잡지 '메이커스'와 AI 메이커스 키트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세트에 발매됐다.

‘메이커스: 어른의 과학 Vol.03 내맘대로 AI 스피커’ 특집호는 AI 음성인식 기술의 작동원리, AI 메이커스 키트의 제작 방법, 응용 사례 등을 수록했다.

이 세트는 대형 서점과 인터넷서점, KT샵(shop.kt.com)과 메이커스 홈페이지(www.makersmagazine.net)에서 구입할 수 있다. AI 메이커스 키트의 작동에 필요한 ‘라즈베리파이 3B’와 SD카드 등이 포함된 A버전(11만8,000원)과 라즈베리파이3B 컴퓨터를 보유한 이용자를 위한 B버전(4만8,000원) 2가지로 판매한다.



▲블록 장난감으로 만든 자동차를 AI스피커를 결합해 목소리로 작동하는 모형자동차 [KT=제공]

올해 중학생에 이어 내년부터는 초등학생도 코딩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AI 메이커스 키트를 활용해 부모와 자녀가 AI 스피커를 함께 만드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 배운 코딩을 AI 메이커스 키트를 통해 실습하고, AI 메이커스 키트를 이용하며 AI 음성인식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KT는 AI 메이커스 키트 출시에 이어 AI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에도 힘을 보탠다. 서울대 공과대, 카이스트(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고려대 빅데이터융합사업단과 올해 하반기부터 AI 메이커스 키트를 활용한 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KT AI사업단장 김채희 상무는 “국내 1등 AI 사업자인 KT는 AI가 전 분야로 확산시키기 위해 일반인도 AI 기기를 만들 수 있는 키트를 기획했다”며, “AI 메이커스 키트가 AI 저변을 넓혀 대한민국 AI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으며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 세계 첫 STEM교육용 AIY 키트는 구글이 지난 4월 구글 어시스턴트를 지원하는 인공지능 카메라와 스마트스피커를 만들 수 있는 라즈베리 파이 (Raspberry Pi) 포함한 DIY AIY(Do-it-yourself artificial intelligence) 비전 키트(Vision Kit)와 음성키트(Voice Kit)를 발표한 바 있다.

인공지능 카메라를 만들어 얼굴 및 감정인식, 사물인식 등을 이용할 수 있는 'AIY 비전키트'와 음악이나 게임, 인터넷 검색을 음성명령으로 주변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인공지능 스마트스피커인 '보이스(음성) 키트'로 만들 수 있다. AIY 비전키트는 89.99달러(한화 약 9만 6천원), 음성키트는 49.99 달러(한화 약 5만 3천원)에 판매 중이다.

IT뉴스 / 임정호 기자 art@itnews.or.kr

☺